



화인코리아 국내 최대 부화장 2개소 인수에 따른 파장과 업계의 반응 I

— 조 문 규 기자

지난해 12월 23일 국내 최대의 오리고기 생산 계열화업체인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는 충남 천안에 소재한 화천부화장(대표 이현주)과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미르네농산(대표 김현숙)을 인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화인코리아가 지난해 인수한 이들 2개 부화장은 화천부화장의 경우 국내 최대의 새끼생산 부화장으로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월 1백만수 내외의 새끼를 생산하였으며 미르네농산은 국내 단일 부화장으로는 최대의 규모로 월 25만수내외의 새끼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생산능력에 있어서 화천부화장은 월 1백50만수, 미르네부화장은 월 1백만수의 새끼를 부화할 수 있는 부화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생산능력은 지난해 종오리 배합사료 생산

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월평균 새끼오리 생산 추정량 2백89만수대비 86.5%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그런데 화인코리아에서 인수한 2개 부화장의 올 1월 새끼생산량을 추정해 보면 천안농장의 경우 1백40만수, 여주농장의 경우 20만수 등 총 1백60만수내외의 새끼오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물량은 지난해 11월의 종오리 사료판매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1월 새끼오리 생산 예산량 2백65만수의 6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추정된다.

화인코리아는 이번 국내 최대의 부화장 2개를 인수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의 완전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최대의 완전 수직계열화업체로 급부상했다. 화인코리아는 이번

부화장인수에 따른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회사 내부적으로 오리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는 국내 오리산업을 선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오는 2월 시간당 4천수의 오리도축능력을 갖춘 최 현대식 도축장이 완공되면 오리고기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보다 품질 좋은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잔모 처리의 어려움이 한층 줄어들어 그동안 수출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함으로써 대일본 수출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화인코리아는 이번 부화장 인수에 따른 수직계열화로 현재 오리업계 생산, 판매, 유통 현장에서 불합리한 상거래 행위로 인한 폐단을 상당부분 개선시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과잉이나 생산부족에 의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오리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국내 오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리업계는 화인이 주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공감하면서도 한 업체의 독주에 따른 우려와 제2, 제3의 수직계열화 유통업체의 출범에 따른 새끼오리 생산과잉에 의한 경기불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화인의 부화장 인수에 따라 기존 2개 부화장에서 새끼오리를 받던 업체들은 새로운 조건에 의해 새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들은 새끼오리를 받을 수 없어 당장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새끼오리 생산 및 육용오리 생산 등 국내 오리산물 상당량을 화인코리아가 점유함으로써 화인의 의도대로 언제라도 새끼오리 가격과 오리고기 유통가격을 좌지우지함으로써 화인에 예측이 불가피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공략이 이뤄지면 기존 유통업체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화인코리아는 기존 호남지역 주요 부화장들과 이미 올 10월까지 새끼오리 공급분양계약



이 이뤄진 상태여서 타 계열화업체가 다른 부화장들의 새끼오리를 분양 받고 싶어도 물량이 용의치 않아 새끼오리를 분양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화인코리아는 2개 부화장 인수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호남지역 부화장을 위시한 타 부화장의 계약관계를 자유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주 이유로 화인코리아가 타부화장과 의 계약관계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 오리 주요 계열화 사업체들은 기존 부화장과의 새끼공급 계약이 안되면 별도의 신규 부화장을 설립하거나 화인코리아와 계약되지 않은 부화장들에게 종오리 사육량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면 올 하반기에는 새끼생산량이 과잉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내 오리업 경기를 생산과잉에 의한 불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업계의 우려와 관련하여 화인코리아는 국내 오리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새끼오리 및 육용오리 생산량 증가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업계가 우려하는 인위적인 새끼오리 가격인상이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판매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리는 일

은 없을 것이라며 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 기존 부화장들과의 계약을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은 계약된 부화장들과 협의를 거친 바 있고 신규로 준공되는 도압장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비를 낮추고 수출물량과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부화장 인수와는 상관없이 기존 부화장들의 새끼물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무튼 이번 화인코리아가 국내 최대 부화장 2개소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오리업계는 향후 큰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새끼오리 분양 및 육용오리에 출하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화인코리아는 부화장 인수이후 생산되는 새끼오리 분양시 기존 부화장들의 외상거래관행을 현금거래로 바꾼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오리계열화업체 및 개별사육농가들이 판매하는 육용오리 역시 현금거래 위주의 거래형태로 점차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업적으로 현금결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체는 새끼오리 입식에 차질이 예상되고 육용오리 출하시 현금결제를 받아내지 못하는 업체 및 개별농가

는 자금압박에 의해 사업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새끼오리 생산물량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어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격불황 시 생산사육조절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화인 코리아의 일괄 수직계열화 시스템에 따른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나 각 계열화 업체 및 개별사육농가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육용오리 사육과 새끼오리 생산분야에 있어서는 개별사육농가들의 사육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계열화사업체의 사육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부화장들 역시 생산성이 좋지 않거나 품질 좋은 새끼오리를 생산하지 못하는 부화장들은 퇴출되거나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갖춘 부화장들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육업계 역시 생산성이 좋지 못한 농가들의 사육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통업계 역시 기존 오리사육농가에서 직접

오리를 사다가 도축하여 유통하던 업체들의 유통비중이 줄어들고 도축된 오리를 받아서 유통하는 유통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리전반에 걸쳐 경쟁관계가 더욱 치열해져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국내 오리업 전체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사업은 종전의 경영방식에 비해 더욱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고 경영소득 역시 종전에 비해 크게 호전되지는 못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